

# 2026년 제19기 김포도시농부학교 경작 보고서

조/성명	1조 / 이정희	날짜	6/13 토
날씨	맑고 더움	시간	8:00 ~ 12:30

경작  
(강의)  
내용

■ 제목: 포도알 숙기, 봉지 씌우기, 퇴비 만들기 실습\_20회차, 이종준, 곳간지기

- 포도알 숙기: 아라포도농원에 가서 포도 송이의 뽀뽀한 알들을 따 주는 포도알 숙기를 했다. 포도가 익을 때 여유 공간이 없으면 포도알 끼리 부딪혀 잘 자라지 못하고 송이가 터지기 때문이다. 지금은 아깝지만 나중에 더 맛있고 크게 먹기 위해 하는 일이다.
- 포도 봉지 씌우기: 알 숙기를 끝내고 송이마다 포도 봉지를 씌웠다. 벌레의 공격을 피하고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한다. 간단한 작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꽤 소요됐다.
- 퇴비 만들기 실습: 두 번째 퇴비 만들기다. 1차 때 만든 퇴비 옆에 공간을 만들어 부숙된 퇴비를 밑에 깬다. 음식물 쓰레기를 고르게 펴고 왕겨를 뿌리고 물을 뿌린다.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비닐을 씌워 퇴비를 발효시킨다.
- 공동 밭 잡초 제거: 고구마 밭과 땅콩 밭 등에 풀이 엄청 자랐다. 날씨가 엄청 뜨거워 땀이 줄줄 났지만 해야 할 일이기에 잡초를 뽑았다. 생각보다 풀이 너무 잘 자란다. 식물보다 잘 자라면 어떡하느냐.
- 개인 밭 잡초 제거: 풀이 덜 자라라고 벚짚을 깔았는데 그 벚짚을 뚫고 풀이 올라왔다. 너무 대단한 생명력의 풀. 고추와 토마토의 줄을 위로 매고 곁가지를 정리했다.

사진

